

KOSDAQ | 자본재

뉴로메카 (348340)

로봇 산업의 패기있는 도전자

체크포인트

- 뉴로메카는 2013년에 설립된 협동 로봇 제조 및 제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매출 비중은 협동 로봇 56%, 물류 로봇 3%, 로봇 부품 등 37%, AS 부품(상품) 1%, SI(System Integration, 용역) 3%로 구분
-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2020년 4.8억달러에서 2030년 80억달러로 성장 전망(연평균 +33%). 중소기업/대기업/선진국 빅테크 기업들도 로봇 산업의 잠재력과 확장성을 인지, 활발히 로봇 사업을 준비/진행 중
- 2022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98억원, -78억원 기록(+32.7% YoY, 적자지속 YoY). 2023년 보수적으로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69억원(+73.3% YoY), -40억원(적자지속 YoY)으로 추정. 2024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264억원(+56.2% YoY), 4억원(흑자전환 YoY)으로 전망. 2024년 호실적 기대는 1) 포항 신공장 효과가 온기로 반영되는 점, 2) 디스플레이/푸드테크 로봇의 대량 주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3) 모터 등 로봇 부품 매출의 확대가 전망되는 점에 기인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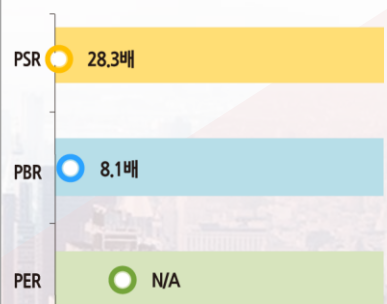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2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산업재산업 내 등급화

벨류에이션 지표



주: PSR, PBR, PER은 2022년 기준, Trailing, Fnguide WICS 분류 상 산업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뉴로메카 (348340)

Analyst 백종석 jongsukbaek@kirs.or.kr
RA 김정은 jeongeunkim@kirs.or.kr

KOSDAQ
자본재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제조 및 제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뉴로메카는 2013년에 설립된 협동 로봇 제조 및 제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매출 비중은 협동 로봇 56%, 물류 로봇 3%, 로봇 부품 등 37%, AS 부품(상품) 1%, SI(System Integration, 용역) 3%로 구분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고성장 중

협동 로봇이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사람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2020년 4.8억달러에서 2030년 80억달러로 성장 전망(연평균 +33%). 중소기업/대기업/선진국 빅테크 기업들도 로봇 산업의 잠재력과 확장성을 인지, 활발히 로봇 사업을 준비/진행 중

뉴로메카 투자포인트

1) 로봇 분야 높은 기술력 보유, 2) 로봇 산업 고성장 수혜, 3) 신규 사업 기대

2022년 실적 부진, 2023년 점진적 실적 개선 후 2024년 흑전 기대

2022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98억원, -78억원 기록(+32.7% YoY, 적자 지속 YoY). 2023년 보수적으로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69억원(+73.3% YoY), -40억원(적자지속 YoY)으로 추정. 2024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264억원(+56.2% YoY), 4억원(흑자전환 YoY)으로 전망. 2024년 호실적 기대는 1) 포항 신공장 효과가 온기로 반영되는 점, 2) 디스플레이/푸드테크 로봇의 대량 주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3) 모터 등 로봇 부품 매출의 확대가 전망되는 점에 기인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0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억원)	41	74	98	169	264
YoY(%)	-43.6	80.8	32.7	73.3	56.2
영업이익(억원)	-82	-30	-78	-40	4
OP 마진(%)	-200.6	-40.9	-79.9	-23.7	1.5
지배주주순이익(억원)	-83	-66	-82	-46	1
EPS(원)	-1,142	-842	-931	-441	10
YoY(%)	적지	적지	적지	적지	흑전
PER(배)	N/A	N/A	N/A	N/A	3,330.3
PSR(배)	0.0	0.0	11.2	19.7	12.6
EV/EBIDA(배)	N/A	N/A	N/A	N/A	491.7
PBR(배)	0.0	0.0	3.2	9.5	9.5
ROE(%)	-132.5	-74.3	-29.7	-12.3	0.3
배당수익률(%)	N/A	N/A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5/2)	31,900원
52주 최고가	46,950원
52주 최저가	11,750원
KOSDAQ (5/2)	855.61p
자본금	52억원
시가총액	3,330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0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36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788억원
외국인지분율	3.28%
주요주주	박종훈 외 3인 22.47%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0.5		
상대주가	-21.3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제조 및 제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제조 및 제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2022년 11월에 코스닥 상장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제조 및 제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2013년 2월에 설립되었다. 동사는 2016년 협동 로봇 '인디'를 출시하며 로봇 제품 상용화를 시작했다. 2017년에는 한국로봇학회 학회상 기술상을 받기도 했다. 2019년 동사는 본사를 서울 성수동으로 이전했고,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는 동사를 '에비유니콘'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2021년 동사는 '올해의 로봇기업'(산업용로봇 부문)을 5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사를 '디자인혁신 유망기업'으로 선정했고, 11월에 동사는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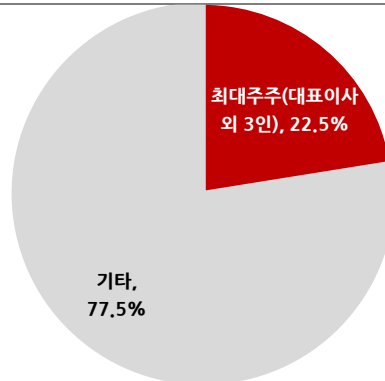
자료: 뉴로메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박종훈 대표이사는 30년 업계 경력 보유

대표이사는 설립자 박종훈으로, 설립 이후 동사 CEO를 지속적으로 맡고 있다. 박종훈 대표이사는 포항공대 기계공학 학사/석사/박사 출신으로, 포항지능로봇연구소, 포스텍 겸임교수 등 30여년의 업계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박종훈 외 3인으로, 동사 지분 22.47%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 구성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2년 12월 31일 기준

2 매출의 구성, 주요 제품

매출 비중은 협동 로봇,
로봇 부품 등이 대부분

뉴로메카 매출 비중은 협동 로봇 56%, 물류 로봇 3%, 로봇 부품 등 37%, AS 부품(상품) 1%, SI(System Integration, 용역) 3%로 이루어져 있다(2022년 사업보고서 기준). 구체적으로 동사 주요 제품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로봇은 다양한 라인업 보유.
부품은 부속품 등 각종 부품

1) 로봇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제조/판매가 주력이고 이외에도 산업용 로봇, 자율이동 로봇, 푸드테크 로봇, 용접 로봇 등을 제품 라인업으로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단품에서 서비스 제품, 솔루션 제품까지 국내에서 최다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2) SI(System Integration, 용역)

SI는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나 교육, A/S, 대여, 설치 등에 관련된 매출이다.

3) 부품

로봇 부속품, 제어품, 액세서리 및 모터, 감속기 등 매출을 말한다.

로봇 제품군



자료: 뉴로메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핵심부품 내재화







자료: 뉴로메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주고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 비중은 중소기업/
소상공인향이 여전히 높아

동사 매출 내 고객 비중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향 63%, 대기업/프랜차이즈기업향 27%, 학교/교육기관향 10% 비중으로 파악된다(2022년 추정 기준). 향후 뉴로메카는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기업/프랜차이즈기업향 및 파트너사향 매출 비중을 늘리려고 계획 중이다.

동사 고객

 <p>국내고객사</p>	<p>7퍼센트/CJ대한통운/EYEDEA/HIMS/TMC/디오시스/디오하이테크/라스테크/로보스타/로보터스/로보테크/로보티즈/롯데정보통신/만도/매드제너레이터/명성시스템/미디어스페이스/물스원/비트센싱/사이보그랩/삼성전자/삼성중공업/선해전기/승우정밀/신신사/신홍화학/양성기계/에버닌/제이에스텍/제타뱅크/케이엔알시스템/태진/현대중공업/화신정공/효진산업/ISA/KITECH/KT/관용테크주식회사/고파자/극동제연공업/김포산업/씨스톤테크놀로지스/씨에이치테크/아세테크/에스에치아이엔티/에스파/영신에프에이/우신씨에프티/원테크코리아/위저드/파세코/팜토바이오메드/포디웰컴/프스코/하티오랩/한국렌탈/한국콘베어공업/한양포장기계/현대모비스/KT/commerce/LG생활건강/LG전자/L5산전/네이버/엑스브레인/노하우팩토리/다우FA/다인큐브/대양화성/대우조선해양/동원F&B/이지/아이티즈/SK/telecom/SUTECH</p>
 <p>교육기관</p>	<p>경희대학교/계명대학교/고려대학교/광운대학교/국민대학교/대구경북과학기술원/동아대학교/부경대학교/부산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성균관대학교/아주대학교/안동대학교/울산과학기술대학교/전북대학교/중앙대학교/카이스트/포항공과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산업기술대학교/한국폴리텍대학/한동대학교/한서대학교/한양대학교</p>
 <p>연구기관</p>	<p>(재)대구경북과학기술원/(재)인체감응술루션/국립재활원/국립중앙과학관/신발피혁연구원/전자부품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로봇융합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p>
 <p>해외고객사</p>	<p>APPLIED MEDICAL BEIJING NOVA TECHNOLOGY CO.,LTD. BOTZIAN & KIRCH GMBH ISA TECHNOLOGY PTE. LTD. JIANGSU SOPHIA SUPPLY CHAIN MANAGEMENT CO., LTD. HANGZHOU GUOCHEN ROBOT TECHNOLOGY CO., LTD. MINAMIDA CO.,LTD. PHANTOM AI, Inc. RELIANCE ENGINEERING COMPANY SAM Elektronik San.ve Tic. Ltd.sti. SOUTHERN SUPPLYCO., LTD. TALENT SYNERGY SDN. BHD.</p>

자료: 뉴로메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4 생산 대수 Capa., 판가

동사 생산 대수 capa.는
6천대/년으로 증가 전망

동사의 로봇 생산 대수 Capa.는 2022년 기준(협동 로봇 full-생산 기준)으로 약 700대/년이다. 동사는 신규로 포함 신공장을 조성 중이고 올해 4월 이후 완공된다면 이론적인 동사 생산 대수 Capa.는 총 6,000대/년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로봇 제품 판가는 다양

동사 로봇 제품의 판가는 사양에 따라 2,000~4,000만원으로 다양하다. 제품군이 늘어나고 있어 판가는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고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리스 형태로 월별 이용료(월 수백만원)를 수취하는 매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다.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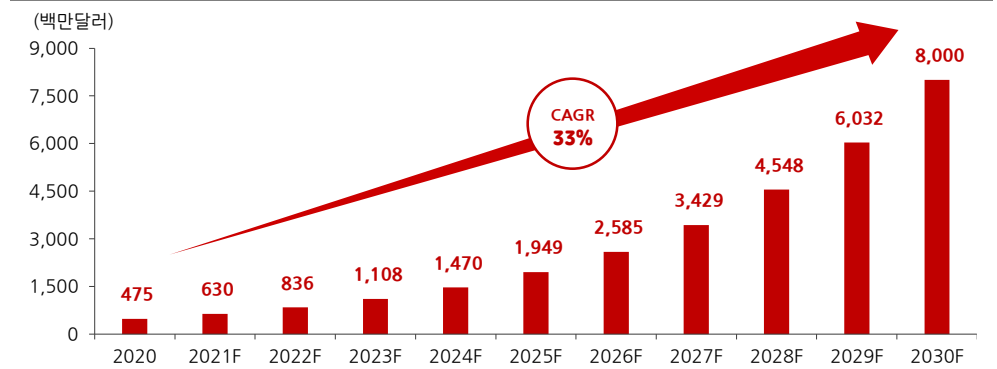
1 협동 로봇 시장은 고성장 중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고성장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2020년 4.8억달러에서 2030년 80억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한국무역협회 전망). 연평균 성장률은 33%로 고성장이 전망된다.

협동 로봇이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사람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이다.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이 사람과는 독립된 공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점과 대조되는 점이다. 협동 로봇은 통상 산업용 로봇보다 느리지만 동작이 정교하고, 작업자/작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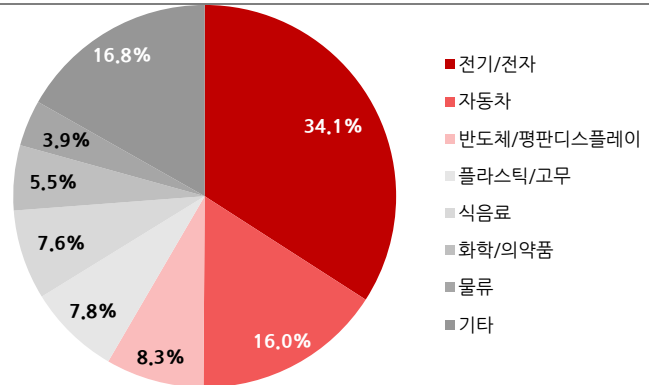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Statista, ABI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 로봇의 응용처는 지속 확장 중

로봇은 초기에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임

로봇은 초기에는 산업용으로 수요를 늘려왔다. 자동차, IT분야 등 제조업 공장에서의 로봇은 로봇 수요의 상당 부분을 지금도 맡고 있다.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지향하는 스마트팩토리에서 여전히 산업용 로봇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 로봇의 응용처별 활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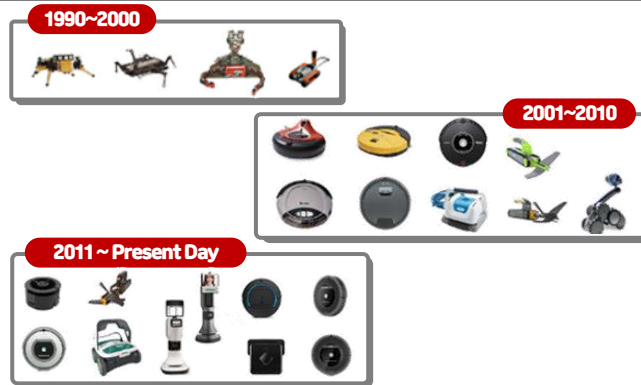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Interact Analysi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2019년 매출액 기준

물류 분야 로봇 수요 기대됨

물류 분야에서의 로봇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 많은 로봇 업체들을 인수합병하며 이를 차근 차근 준비하고 있다. 아마존은 2022년 8월, 17억달러(약 2조 3,000억원)에 아이로봇을 인수하며 로봇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마존은 세계적인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특히 물류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하고 싶은 니즈가 크다고 보인다.

아이로봇 시기별 제품군



자료: 아이로봇,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방산기업들, 군용 로봇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군사용 로봇은 전통적으로 로봇 수요가 기대되는 분야다. 국내/외 방산기업들은 군용 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사족 보행 로봇, 군인이 착용할 수 있는 엑소슈트(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군용 로봇 시장이 2030년 45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는 만큼, 방산기업들은 로봇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트렌드다.

고스트로보틱스 '비전60'



자료: 지디넷코리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웨어러블 로봇 착용모습



자료: 조선택스, UG넥스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의료용 로봇 산업,
로봇 수요의 메인 분야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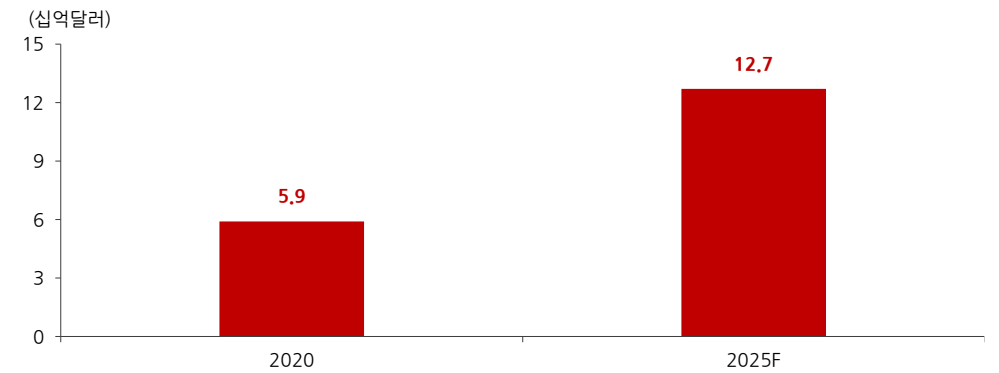
의료용 로봇은 이미 로봇 수요의 메인 분야 중 하나다. 시장조사기관 Value The Market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은 2020년 59억달러에서 2025년 127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로봇기술 혁신이 수술, 연구, 치료 등 여러 의료 분야에서 확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술용 로봇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은 미국의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다.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대표적인 수술용 로봇 제조기업으로, 전세계 병의원에 수술용 로봇을 납품 중이다.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1995년 설립 이래 전세계 최소침습수술 기술과 로봇 수술 분야의 선도 기업이었다. 인튜이티브의 로봇 수술 시스템의 등장으로 최소한의 부위만 절개한 뒤 정밀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수술 후 흉터 감소, 합병증 발생률 감소, 회복 시간 단축 등 수술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현재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da Vinci) 로봇 수술 시스템은 전세계 69개 국가, 약 6,700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수술 로봇 분야
상용화 이뤄내**

국내 의료 로봇 분야에서도 큐렉소, 고영, 미래컴퍼니 등 여러 기업들이 수술 로봇 분야에서 제품 상용화를 이뤄내고 있어 긍정적이다.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 전망



자료: Value The Marke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큐렉소 무릎인공관절 수술로봇 'CUVIS-joint'



자료: 큐렉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미래컴퍼니 비뇨의학 수술로봇 'Revo'



자료: 미래컴퍼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삼성전자, 로봇 사업 진행 예정.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적극적으로 투자

삼성전자도 올해부터는 의료용 로봇 중심으로 로봇 사업을 상용화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6월 자사의 로봇 브랜드인 '삼성봇'을 미국과 캐나다에 상표권 등록했다. 삼성전자는 의료보조 로봇으로 시작하여 앞으로 다양한 로봇 사업을 펼치기 시작할 전망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CES 2020'에서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GEMS Hip'을 공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 3일 코스닥 상장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발행예정주식수 194만주, 발행금액 589억원, 지분율 10.3%).

추가적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3월 15일, 2가지 주요사항을 공시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오준호 등 특수관계인 6인이 지분 4.8%를 삼성전자에 매도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율은 15.2%로 늘었다. 두번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콜옵션 조건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의 체결)을 공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주요 경영진(오준호 외 6인)이 콜옵션 의무자가 되어 콜옵션 권리자인 삼성전자에 콜옵션(매도청구권) 행사 관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었다. 주주간 계약에 따

라, 삼성전자는 주주간 계약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게 삼성전자가 보유하는 발행회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전부를 삼성전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 등에게서 주식 8,550,439주를 매입할 수 있다는 계약으로, 향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F&B 분야에서 로봇 대중화 증

F&B(음식료) 로봇 분야는 로봇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다양한 협동 로봇이 커피 등 음료, 피자, 치킨 등 음식의 제조에 이용되고, 음식 서빙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주문한 음식을 로봇이 가지고 테이블 앞까지 온다거나, 대형 쇼핑몰/전시장 등에서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를 마시는 일은 이제는 낯선 경험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성수동 루덴스파트너스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뉴로메카의 협동로봇이 요리하는 모습



자료: 로봇기술,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로봇 산업의 성장 잠재력 부각

이렇듯 로봇은 우리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폭을 넓히고 있고, 미래에는 추가적인 응용처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성장성 측면에서 로봇 산업이 가진 잠재력은 매우 크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의심은 코로나 팬데믹 후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테슬라도 로봇 사업을 준비

테슬라는 2022년 9월말 AI 데이를 통해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선보였다. 옵티머스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반도체가 적용되고 총 8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었다. 시속 8킬로미터(km)로 이동하며 최대 20kg의 물체를 운반하고 최대 68kg의 물건을 들 수 있다. 일론 머스크 CEO는 2023년말까지 옵티머스 시제품을 개발 완료하고 생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렇듯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선진국 빅테크 기업도 로봇 산업의 잠재력과 확장성을 인지, 활발히 로봇 사업을 준비/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로봇 산업의 성장성은 명확하다는 방증이라 판단한다.

서울 모빌리티쇼 2023 에서 전시된 테슬라 ‘옵티머스’



자료: M투데이, 테슬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테슬라 옵티머스 주요 스펙

키	무게	적재량	이동 속도	데드리프트	구동장치 수 (Actuators)	Bot brain
5 ft 8 in (173cm)	160 lb (73 kg)	45 lb (20 kg)	5 mph (8kph)	150 lbs (68 kg)	28	TESLA SOC

자료: 테슬라, 언론취합,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동사는 특허, 제품라인업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

1) 로봇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 보유

동사는 로봇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사의 기술력을 체감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많은 연구인력 확보와 업계 최다 특허 등록

동사의 현재 총인력은 95명이다. 이중 연구인력의 비중은 약 60~70%에 이른다. 연구인력 중 석/박사 비중도 약 30%이다. 동사는 현재 70건의 특허출원을 했고 30건이 이미 특허등록 되어있다. 국내 업계 최다 규모 특허 등록은 동사의 기술력과 진입장벽 구축을 방증한다.

2) 로봇/서비스/솔루션 제품 최다 보유

동사는 로봇부터 솔루션까지 국내에서 최다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 중이다. 이러한 면을 인정받아 동사는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었고, 국방부로부터 우수상용품 시범사용기업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3) 로봇, 플랫폼, 자동화 솔루션의 일괄 공급이 가능한 사업모델 보유

동사는 로봇 단품 제조 뿐 아니라 로봇을 구동하는 제어 소프트웨어 구축, 그리고 복합적인 동작/작업들을 로봇에 지시할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까지 일괄 공급이 가능한 기술력과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각기 고유의 니즈에 맞게 필요한 작업 관련해서 동사에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요구할 수 있다.

뉴로메카의 로봇기술 핵심인력

 <p>허영진 CTO</p>	<p>로봇제어 및 디러닝 전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 카이스트 Executive MBA, 포스텍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경력: 포스텍 협동로봇디러닝 연구센터장, 학술지 7편, 해외학술대회 9편, 등록특허 6건 	 <p>최은서 CPO</p>	<p>제조로봇 개발 전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 포스텍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경력: 두산로보틱스 책임연구원(파트리더), 삼성중공업 책임연구원, 6시그마 BB, 등록특허 58건, 프로그래밍등록 5건
 <p>박용식 연구소장</p>	<p>로봇설계 및 통합 전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 포스텍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수료 경력: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선임연구원, 포스코 기술연구소 겸임연구원, IR52 장영실상 수상 	 <p>한정연 CRO</p>	<p>산업용 협동로봇 개발 전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 Univ. California at San Diego 기계항공공학과 공학박사, 포스텍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경력: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해외 학술지 4편, 학술대회 10편, 등록특허 10편

자료: 뉴로메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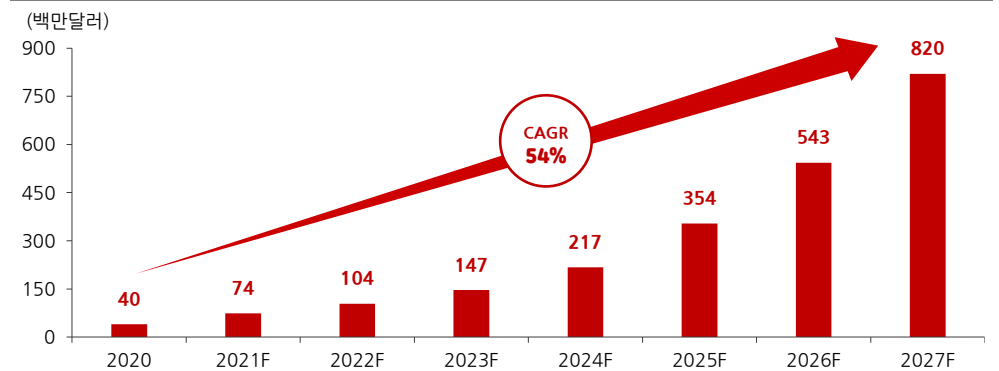
2) 로봇 산업 고성장의 수혜

협동 로봇 국내 시장 고성장으로 인한 수혜 가능

전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고성장이 전망된다. 동사는 아직 수출 매출이 미미하므로 국내 시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은 2020년 0.4억달러에서 2027년 8.2억달러로 고성장이 기대된다(연평균 +54%). 동사는 이런 고성장하는 국내 로봇 시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참고로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은 약 5~6개사(유니버설로봇, TM,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뉴로메카, 유일로보틱스 등)가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데 기업들 각각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로메카는 F&B 로봇과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에 있어 타사대비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전망



자료: MarketsandMarkets(2021),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중장기적으로 신규 사업 기대

동사는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로봇과 부품 사업 확대 가능

뉴로메카는 중장기적으로 푸드테크 로봇 사업, 의료용 로봇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생산자) 사업, 부품 사업 등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푸드테크 로봇은 키친 조리 로봇, 스마트팜 온실 로봇을 말한다. 키친 조리 로봇은 이미 일부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치킨업체 K사향으로는 2022년에 4대, 올해 4월에 1대가 납품되었다. 향후 대량 납품을 위해 고객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스마트팜 온실 로봇은 온실 데이터 획득 및 스마트팜 관리 관련한 로봇 제품이다. 이미 상용화 준비는 되어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팜 로봇 플랫폼 장점



자료: 뉴로메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뉴로메카, 큐렉소와 전략적 파트너십 MOU 체결

뉴로메카는 4월 21일, 큐렉소와 의료로봇 분야 상호 발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고 대외적으로 밝혔다. 협약식에는 양사 대표인 박종훈 뉴로메카 대표와 이재준 큐렉소 대표가 참석했다. 양사 협약을 통해 뉴로메카는 큐렉소의 수술로봇과 의료로봇의 조인트 모듈, 메뉴플레이터, 제어기 등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한다. 그 외에 양사가 새로운 서비스 로봇 분야의 사업화를 함께 할 수 있다. 뉴로메카는 이렇듯 각 분야를 선도하는 로봇 파트너와 MaaS(Manufacturing as a Service) 비즈니스를 통해 다양한 시장에서 효율적이고 빠른 성공 레퍼런스를 만들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모터, 감속기 등 부품을 외판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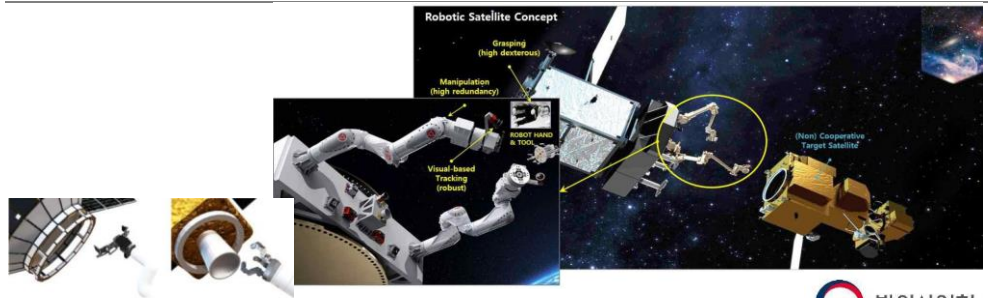
부품 사업은 모터, 감속기를 좀더 고사양으로 자체 개발하여 외부 판매를 꾀하는 것이다. 현재 동사는 프레임리스모터 100~3,000와트 출력별 7종을 시양산하고 개발하고 있다. 2023년 내에는 프레임리스모터 개발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동사 제품에 적용 및 외판을 하는 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

감속기(회전운동을 하는 모터의 회전속도를 줄여 토크로 증폭시키는 기계장치)의 경우, 동사는 2022년 기계/자기 하이브리드 HD 감속기를 개발했다. 2024년까지 하모닉드라이브사의 감속기를 대체하는 저가형 자체 감속기 개발을 완료하고, 중장기적으로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자율이동 로봇, 용접 로봇, 우주 청소 로봇도 향후 예정

이 밖에도 동사는 자율이동 로봇('모비'), 용접 로봇, 우주 청소 로봇의 사업화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 관련 로봇 시장 진출



'우주잔해물 포획 위한 전개형 및 로봇팔형 탐재체 기술개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



자료: 뉴로메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2년은 부진한 실적으로 마감

매출원가, 판관비 증가 등으로 부진한 실적으로 마감

뉴로메카의 2022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98억원, -78억원이었다(+32.7% YoY, 적자지속 YoY). 매출액은 협동 로봇 수요 증가와 그에 수반되는 부품, SI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성장했다. 반면 영업적자는 1) 원재료비 증가로 인한 매출원가 상승, 2) 연구개발비(인건비 등) 상승에 따른 판관비 증가, 3) 일부 일회성 비용(상장관련 및 기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동사는 아직까지는 매출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적은 반면, 연구개발 인력 중심으로 인원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선점과 제품 개발 등을 위해 동사는 2022년 각종 비용 집행이 늘어나는 시기였다.

2 경쟁사 대비 매출원가율, 판관비율 비교/분석

경쟁사와 매출원가율, 판관비율 수치 비교/분석

동사가 주력하는 협동 로봇 산업의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매우 견조할 전망이다. 따라서 수요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다만 고성장하는 로봇 산업 내에서 동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수익성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동사가 향후 원가 및 판관비 절감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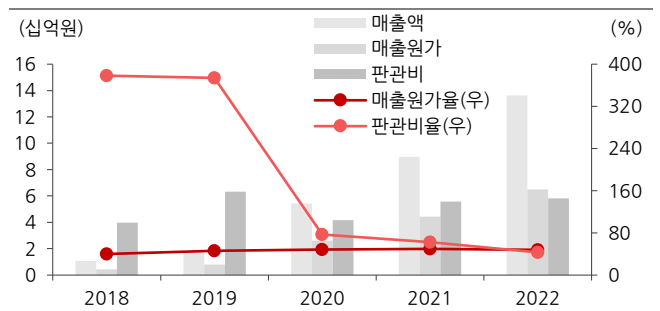
협동로봇 선두업체인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뉴로메카의 연도별 매출원가율, 판관비율을 비교/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우 매출원가율, 판관비율이 각각 2018년 40.0%, 378.1%에서 2022년 47.7%, 42.7%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뉴로메카의 경우 매출원가율, 판관비율이 각각 2018년 100.0%, 122.3%에서 2022년 88.2%, 91.8%로 변화되었다. 개선은 되었으나 의미있게 개선되었다고 언급하기는 어렵다. 이렇듯 동사는 아직은 원가 및 판관비 절감 측면에서 선두업체 대비 열위인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비용 통제와 원가 절감(부품 내재화 등)에 있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연도별 매출액, 매출원가율, 판관비율 추이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십억원)	1.1	1.7	5.4	9.0	13.6
매출원가(십억원)	0.4	0.8	2.6	4.4	6.5
판관비(십억원)	4.0	6.3	4.2	5.6	5.8
매출원가율(%)	40.0	46.2	48.1	49.5	47.7
판관비율(%)	378.1	374.0	76.8	62.0	42.7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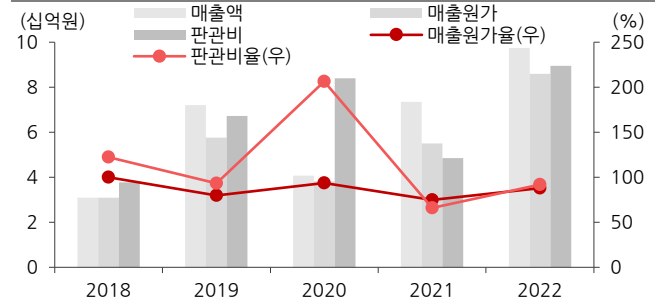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뉴로메카 연도별 매출액, 매출원가율, 판관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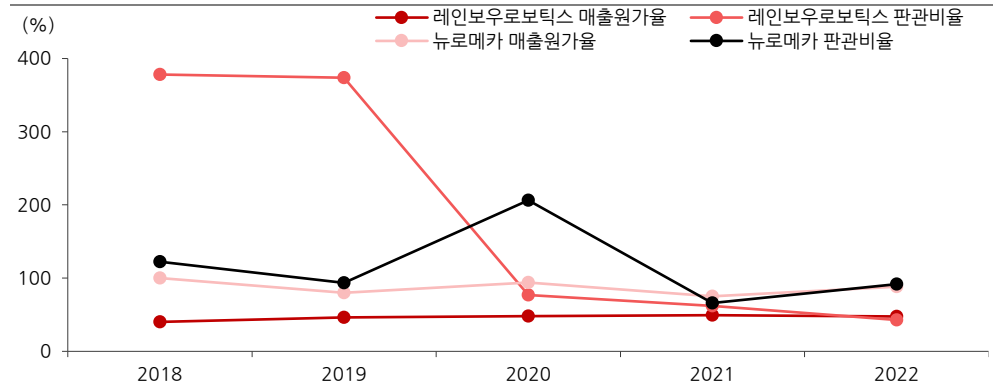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십억원)	3.1	7.2	4.1	7.4	9.8
매출원가(십억원)	3.1	5.8	3.8	5.5	8.6
판관비(십억원)	3.8	6.7	8.4	4.9	9.0
매출원가율(%)	100.0	80.0	93.9	75.0	88.2
판관비율(%)	122.3	93.3	206.4	66.0	91.8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뉴로메카 매출원가율, 판관비율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2023년 점진적인 실적 개선 전망. 2024년 흑전 기대

뉴로메카, 2023년 점진적 실적 개선 전망

뉴로메카의 2023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69억원(+73.3% YoY), -40억원(적자지속 YoY)으로 전망한다.

동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실적 추정을 제시한다. 매출액 전망치는 평균평가 0.27억원, 협동로봇 판매 대수 400대를 가정하여 추정했다. 2023년 2월 CEO가 언론에 제시한 2023년 실적 목표치(매출액 240억원, 영업이익의 소폭 흑자 등 제시)를 참고하여, 예상 평균평가와 판매 대수 예상치 등을 감하여 추정한 것이다.

영업이익률 전망치는 전년 대비 개선될 것을 가정하였다. 1)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점, 2) 원가 및 비용 절감 노력이 점차 나타날 것이라는 점, 3) 전년과 같은 대량의 1회성 비용 발생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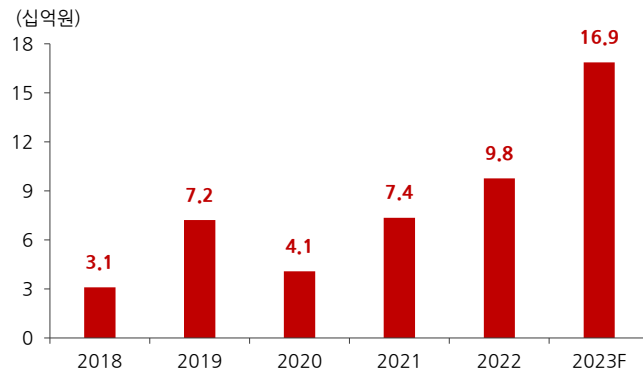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F
매출액	72	41	74	98	169
협동 로봇(인디)	56	21	33	55	108
물류 로봇(디, 모비)	8	5	1	3	4
로봇 부품 등	5	6	15	37	51
AS 부품(상품)	1	-	2	0	0
SI(System Integration, 용역)	2	9	23	3	5
영업이익	-53	-82	-30	-78	-40
지배주주순이익	-30	-83	-66	-82	-46
YoY 증감률					
매출액	133.2	-43.6	80.8	32.7	73.3
영업이익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순이익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이익률	-73.3	-200.6	-40.9	-79.9	-23.7
지배주주순이익률	-41.5	-203.4	-89.7	-84.1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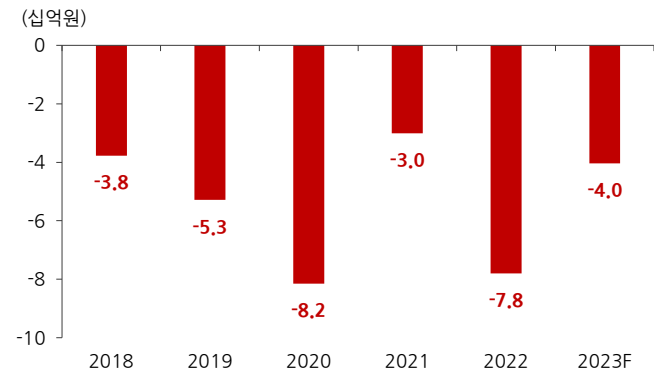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결기준 매출액 연간 추이 및 전망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결기준 영업이익 연간 추이 및 전망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4년에 본격적인 실적 개선 기대

뉴로메카에 대해 2024년,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 2024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264 억원(+56.2% YoY), 4억원(흑자전환 YoY)으로 전망한다. 호실적을 기대하는 것은 1) 포항 신공장 효과가 온기로 반영되는 점, 2) 디스플레이 로봇과 푸드테크 로봇의 대량 주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3) 모터 등 로봇 부품 매출의 확대가 전망되는 점 등 때문이다.

이밖에 2024년 및 그 이후에 추가적인 동사 매출 업사이드 요인으로는 1) 의료용 로봇 ODM 사업의 본격화, 2) 자율이동 로봇(‘모비’), 용접 로봇, 우주 청소 로봇 등 신규 제품의 매출 본격화를 고려할 수 있다. 동사에 대해 단기적인 실적 기대보다는 다양한 로봇 사업의 성장성과 중장기 손익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한다.

Valuation

밸류에이션은 업종 특성 상 높은 상황이 지속될 전망

동사 밸류에이션, 시장 대비 고평가

뉴로메카의 현재 시가총액은 3,330억원 수준이다. 2022년 확정 실적과 2023년 실적 추정치 기준 동사의 PER은 순이익이 적자일 전망이므로 산정되지 않는다. 동사의 PBR 밸류에이션은 2022년 3.2배, 2023년 9.5배로, 코스닥 시장 2023년 PBR 2.6배 대비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제외할 시 동사는 Peer그룹과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어

동사의 Peer그룹으로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스타, 로보티즈, 유일로보틱스 등 국내 로봇 기업들을 고려할 수 있다.

로봇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업종의 성장성, 기대감이 높은 만큼 미래 실적 추정 및 전망에 기반하여 높은 멀티플이 부여되는 시기에 놓여있다. 로봇 기업간 비교도 3~5년 후 각 기업들의 예상 실적과 경쟁력 전망에 대한 고려를 종합적으로 하여야 한다. 즉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적정 기업 밸류를 산정하거나 비교/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로봇 산업의 성장성과 확장성을 고려할 때에 로봇 기업들의 고평가는 향후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Peer그룹과 PBR, PSR, 시가총액을 2022년 기준으로 각각 간략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사는 Peer그룹 평균 대비 PBR 측면에서 저평가를, PSR 측면에서도 저평가를,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제외할 시 Peer그룹과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 제외 기준으로 동사는 Peer그룹 대비 대체적으로 유사한 밸류에이션을 받는 중이다.

동사는 현재 시장 대비 고평가 상태이나 향후 대량 주문 고객들이 생겨나고, 동사가 준비한 신사업이 기대 이상의 성장을 시현하고, 부품 사업으로 성장세를 보인다면 향후 밸류에이션 부담은 축소될 수 있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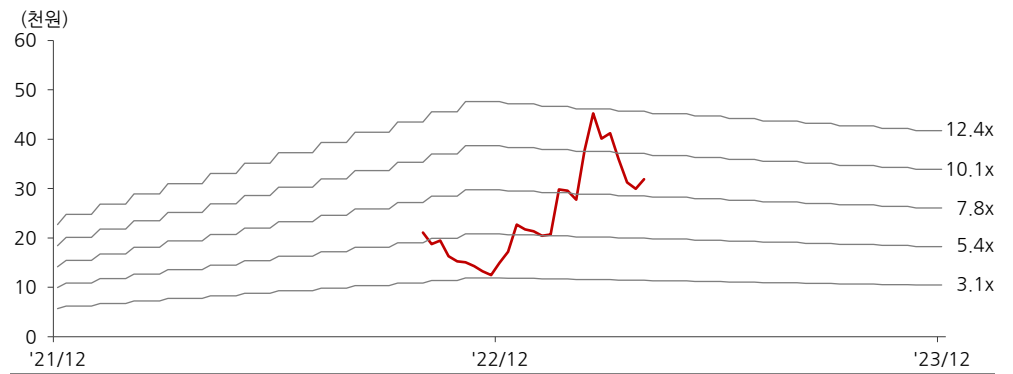
(단위: 원, 십억원, 배, %)

기업명	종가	시가 총액	매출액		PSR		PBR		ROE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코스피	2,524	1,932,231	2,920,598	3,673,693	-	-	-	-	-	-
코스닥	856	406,793	272,094	327,872	-	-	-	-	-	-
뉴로메카	31,900	333	7	10	-	11.2	-	3.2	-74.3	-29.7
레인보우로보틱스	102,100	1,966	9	14	48.3	41.9	9.4	9.4	-28.8	10.6
로보스타	33,450	326	142	143	1.8	1.3	3.0	2.0	1.9	3.7
로보티즈	33,050	406	22	26	12.4	10.5	4.0	3.2	1.1	-0.3
유일로보틱스	27,700	238	35	38	-	4.5	-	4.5	26.0	-7.6
동종업종 평균	-	-	-	-	20.8	14.5	4.1	4.8	0.1	1.6
레인보우로보틱스 제외 동종업종 평균	-	-	-	-	7.1	5.4	2.3	3.3	9.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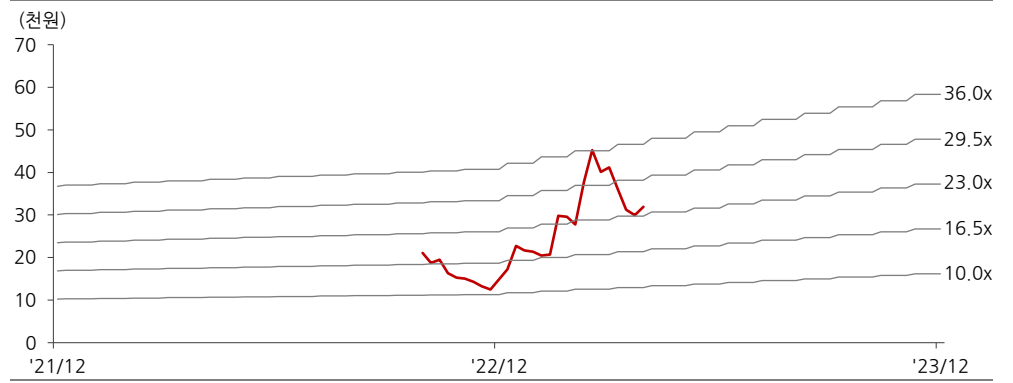
주: 2023년 5월 2일 종가기준

자료: Quantwise, Refinitiv,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PBR Band



PSR Band




리스크 요인
향후 손익에 대한 기대감은 낮추고, 업계 내 합종연횡 구도는 지켜봐야
**단기적으로는 동사에 대해
손익 기대감은 낮춰야**

동사는 당분간 로봇 사업에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등 비용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장 동력인 협동 로봇 산업은 기회의 땅이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단기 손익 위주 관점에서는 비용을 절감하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는 동사와 같은 기업에 다소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동사는 미래 성장을 위해 인건비와 경상연구개발비, 각종 판관비를 당분간 늘려서 지출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임을 투자자들은 주지해야 한다(동사는 총 인력 규모를 현재 95명에서 2023년말 110명 이상으로 계획 중). 로봇이라는 블루오션 시장 선점을 위해 로봇 기업들의 투자 및 비용 지출은 불가피하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동사에 대해 손익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기업-로봇 기업들간 합종연횡
관찰해야**

로봇 산업 분야에 대기업들의 참여가 향후 본격화될 수 있다. 이미 연초에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는 이를 예고/시사하고 있다. 대기업의 지분 투자 혹은 인수합병이 동사에게 온다면 이는 기회 요인일 수 있지만, 경쟁사들에게 갈 시 이는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자본력을 보강한 경쟁사들이 늘어날 시 이는 동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판가나 설비투자 등 측면에서 부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업계 전반적인 인수합병, 지분 투자 등 대기업-로봇 기업들간 합종연횡 구도에도 투자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0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41	74	98	169	264
증가율(%)	-43.6	80.8	32.7	73.3	56.2
매출원가	38	55	86	114	148
매출원가율(%)	92.7	74.3	87.8	67.5	56.1
매출총이익	2	18	12	55	116
매출이익률(%)	6.1	25.0	11.8	32.5	43.9
판매관리비	84	48	89	95	112
판매비율(%)	204.9	64.9	90.8	56.2	42.4
EBITDA	-72	-21	-69	-31	6
EBITDA 이익률(%)	-176.6	-28.8	-70.7	-18.5	2.4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영업이익	-82	-30	-78	-40	4
영업이익률(%)	-200.6	-40.9	-79.9	-23.7	1.5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영업외손익	-1	-36	-4	-6	-3
금융수익	11	2	4	7	9
금융비용	20	39	10	12	14
기타영업외손익	8	1	2	-1	2
중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83	-66	-82	-46	1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흑전
법인세비용	0	0	0	0	0
계속사업이익	-83	-66	-82	-46	1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83	-66	-82	-46	1
당기순이익률(%)	-203.4	-89.7	-84.1	-27.2	0.4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83	-66	-82	-46	1

현금흐름표

(억원)	2020	2021	2022	2023F	2024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0	-11	-80	-60	-37
당기순이익	-83	-66	-82	-46	1
유형자산 상각비	9	9	8	7	2
무형자산 상각비	0	0	1	2	1
외환손익	1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0	-1	-16	-23	-41
기타	23	47	9	0	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2	-46	-193	-20	27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5	3	2	-1	-2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	-2	-30	0	0
기타	18	-47	-165	-19	29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4	135	261	27	22
차입금의 증가(감소)	30	0	-11	27	22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140	276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14	-5	-4	0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현금의증가(감소)	26	78	-11	-53	12
기초현금	9	35	113	102	48
기말현금	35	113	102	48	61

재무상태표

(억원)	2020	2021	2022	2023F	2024F
유동자산	86	221	394	395	437
현금성자산	35	113	102	48	61
단기투자자산	4	46	209	228	199
매출채권	7	26	29	38	59
재고자산	38	31	29	38	51
기타유동자산	2	5	25	43	66
비유동자산	35	23	45	37	36
유형자산	13	11	37	30	28
무형자산	1	1	3	1	0
투자자산	1	4	2	3	4
기타비유동자산	20	7	3	3	4
자산총계	121	243	438	432	473
유동부채	91	85	40	70	105
단기차입금	30	30	20	35	50
매입채무	1	7	6	11	17
기타유동부채	60	48	14	24	38
비유동부채	8	3	1	11	16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10	15
기타비유동부채	8	3	1	1	1
부채총계	99	88	41	81	121
지배주주지분	22	156	397	351	352
자본금	7	8	52	52	52
자본잉여금	263	458	418	418	418
자본조정 등	7	10	11	11	1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255	-321	-83	-129	-128
자본총계	22	156	397	351	352

주요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F	2024F
P/E(배)	N/A	N/A	N/A	N/A	3,330.3
P/B(배)	0.0	0.0	3.2	9.5	9.5
P/S(배)	0.0	0.0	11.2	19.7	12.6
EV/EBITDA(배)	N/A	N/A	N/A	N/A	491.7
배당수익률(%)	N/A	N/A	0.0	0.0	0.0
EPS(원)	-1,142	-842	-931	-441	10
BPS(원)	298	1,828	3,844	3,365	3,374
SPS(원)	562	938	1,107	1,620	2,529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132.5	-74.3	-29.7	-12.3	0.3
ROA	-60.9	-36.2	-24.1	-10.6	0.2
ROIC	-110.6	-53.4	-96.4	-35.4	2.9
안정성(%)					
유동비율	94.8	260.4	978.5	564.1	417.1
부채비율	451.6	56.3	10.3	23.0	34.3
순차입금비율	236.5	-57.6	-72.5	-99.6	-53.2
이자보상배율	-16.9	-5.6	-26.7	-17.3	1.0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3	0.4	0.3	0.4	0.6
매출채권회전율	2.5	4.6	3.6	5.1	5.4
재고자산회전율	0.9	2.1	3.2	5.0	5.9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기업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중소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정보 등 대외제공에 관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의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